

[번역]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신비주의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게르하르트 베어

김 형 수 옮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철학 교수·신부]

I. 두 시대의 요동 속에서

II. 쿠자누스 생애의 여러 국면들

III. 쿠자누스 사상을 이루는 요소들

I. 두 시대의 요동 속에서

서양 정신사의 흐름에서 분수령을 이루고 과도기 현상으로 대두된 한 시기는 뚜렷한 인상을 남긴다. 항상 그렇듯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은 준비된 어떤 것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때마다 현재적인 것에 미래적인 것이 미리 형성되어 나타난다. 신학과 영성의 영역에서는 중세를 마감하는 시기에 신비적 내면성과 세상의 활기에 의해 이러한 점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olaus Cusanus, 1401~1464년)의 삶과 여러 방면의 영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두 시대 사이의 경계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쿠자누스가 유일하게 월등하지 않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하지만 그 시대를 고려한다면, 쿠자누스에게는 특별한 경우라는 의미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는 철학사적, 신학사적 서술에서도 발생한다.¹⁾ 그의

* 이 글은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번역문임.

[원문] Gerhard Wehr, *Nicolaus Cusanus: Textauswahl und Kommentar*, marix Verlag, 2011,

여러 측면에서의 학문과 업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에게는 여러 개의 명칭이 필요하다. 이러한 명칭들은 적어도 이미 쿠자누스의 생애에서 현저하게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인품을 잘 드러내어 특징지어 줄 수 있다.

쿠자누스는 법학자, 외교관, 신학자,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였다. 더욱이 그는 교회법 박사로서 교회의 각종 외교적 과제들을 맡아서 처리했다. 그는 교황 비오 2세(1458~1462)의 자문 역할을 하는 추기경으로서 현재 오스트리아 브릭센 지역의 교구장직을 수행했고, 1431년에 개혁 공의회에 기치를 걸고 개최되었던 바젤 공의회에도 협력했다. 그는 교회의 포괄적인 일치를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의 초기 저작인 『보편적 합의』(1433년)에서 이러한 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이루고 그 일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교회 내부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관련된다. 놀랍게도 이는 마르틴 루터(1483~1546)의 생애와 작품과 연루된 본래의 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에 통찰되었다. 이 시대에는 적어도 처음부터 평화에 대한 뜻을 품고 교황과 주교들의 상이한 관심을 조정하는 대변인이 특별히 필요했다. 쿠자누스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했다. 비록 평화를 추구하는 그의 정신으로부터 우리나 온 뜻이 항상 관철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말이다.

쿠자누스가 이 같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유일한 단서는 그가 신비주의의 정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쿠자누스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의 라틴어 설교뿐만 아니라 그의 독일어 설교들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구 그리스도교가 당시에 어떤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1453년 터키인들은 오늘날 이스탄불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고, 이 사건은 서방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때 종교 상호 간

pp.5~20.

1) Karl Vorländer, *Philosophie des Mittelalters — Geschichte der Philosophie II*, Reinbek 1964, 1978; Jill Raitt(Hrsg.), *Geschichte der christlichen Spiritualität II*, Würzburg 1995; Kurt Flasch, *Das philosophische Denken im Mittelalter 2*, rev. Aufl. Stuttgart 2006.

에 대립되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예컨대, 유럽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을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종교의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 보증될 수 있는가와 같은 물음에서 그러하다. 쿠자누스는 자신의 종교철학적 통찰을 통해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이전의 십자군의 이념에 따라 폭력적인 해결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평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요구한다. 이 당시 교회사적 상황을 특징짓는 것은 1054년 이래로 로마의 서방 교회와 그리스-비잔틴의 동방 교회 사이의 불화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전문가” 역할을 하는 인물을 자처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이 일을 맡은 “권권자”로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가시적인 자연과 내적인 정신을 함께 보기 위해 애쓰는 이 지식인의 작품들에 깊이 빠져든 사람은 이 지식인이 탐구해 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쿠자누스가 코란과 무슬림의 경건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첫 번째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은 많은 여행을 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면을 직관하는 경건한 신비주의자로서 교회의 사람인 쿠자누스가 남긴 삶의 흔적을 추적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분적으로는 대화형식으로 되어있는 그의 수많은 저작에서 쿠자누스는 신중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표현한다. 여기서 쿠자누스와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만나는데 있어서 다음에 소개할 구절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눈여겨본다면, 그때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게 된다. 우리는 영혼 안에

그 능력에 따라 이성적 근거(rationem)와 지적 대상에 대한 규칙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향해 방향을 돌려 눈여겨볼 때에만 정말로 그 진리를 알아보게 된다.”²⁾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신의 현존에 대한 의식 속에서 무한자의 배후에서, 그리고 무한자의 심연 앞에 있는 유한자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했다. 쿠자누스는 저물어가는 중세 시대를 살아간 한 명의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시선은 훨씬 더 먼 곳을 벽차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쿠자누스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도 일깨울 수 있다. 비록 그의 정신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질문들, 특히 이슬람과의 종교적 평화와 이와 관련된 주제 범위가 그 사이에 다른 입장 표명과 더불어 전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칼 야스퍼스는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었던 이 중세 철학자에 대해 말했는데, 야스퍼스에 의하면 쿠자누스는 다른 중세 철학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크기와 한계, 인간의 능력과 정신적 창조력을 자신의 숙고의 중심에 놓고 있다. 물론 쿠자누스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점은 신에 대한 물음과 같은 것이었다. 쿠자누스는, 예컨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정신적인 후계자라는 의식에서 신비주의 정신을 간직 한 신앙인으로서 신에 대한 물음에 전념했다.³⁾

2) Cusanus, *Dialogus de ludo globi*(Über das Kugelspiel), in: *Aller Dinge Einheit ist Gott*, hrsg. Gerd Heinz-Mohr. Zürich 1984, S.30.

3) 쿠자누스가 유년 시절에 ‘공동생활의 형제들’의 영향 아래서, 다시 말해 특히 독일 저지대 지역에서는 형제단(Fraterherren)으로 결성되어 활동했으며, ‘새로운 신심 운동’(Devotio moderna)이라는 영적이고 명상적인 삶의 형태를 체험했는지의 여부는 흔히 주장하는 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체험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없다. 이러한 종교적-신비적 물결의 중요한 결실이 바로 토마스 아 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따름』(*De imitatione Christi*)이라는 책이다.

II. 쿠자누스 생애의 여러 국면들

배의 선주이자 포도 재배가로 명성을 얻은 성공한 상인인 요한 크렙스(어원적으로는 Chryfftz, 라틴어로는 Cancer)의 아들로, 쿠자누스는 1401년 오늘날 독일 베른카스텔에 속하는 쿠스(Kues)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모젤 강변의 이 작은 마을은 트리어 교구에 속했기 때문에, 관청의 명부에서는 쿠자누스를 니콜라우스 트레비렌시스(Trevirensis [트리어의 라틴어 명칭])라고도 기록하고 있으며, 라틴어로 기록된 문헌에서는 그를 니콜라우스 데 쿠자(Nicolaus de Cusa)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쿠자누스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1416년에 이르러서야 발견된다. 이 해에 많은 곳을 여행했고 포도주 중개상으로 활동하던 부친은 15살의 쿠자누스를 학업을 위해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보냈다. 쿠자누스가 자신의 학업 기간 동안 떠들썩했던 이단 심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이단 심문은 독일 남부의 뢰펜[=보헤미아]에서 시작된 교회 비판적인 설교들 때문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문제 삼은 얀 후스(Jan Hus, 1372~1415년)라는 인물에 관한 것이다. 후스는 지기스문트 황제에 의해 보장된 자유 통행권에도 불구하고 1415년에 화형 당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서야 주목을 받아서 토론의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다. 쿠자누스는 교회법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으로서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들을 특별히 숙고할 것으로 여겼다.

학업 기간 동안 쿠자누스는 우선 ‘자유 학예’(artes liberales)를 비롯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⁴⁾ 스콜라적으로 점차 분리되어 가던 교육 체계의 테두리에서 이러한 자유 학예의 바탕 하에 법학, 의학, 그리고 철학적인 근거를 지닌 신학이라는 전통적인 세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본래의 대학 교육이 이어졌다.

쿠자누스의 정신적 지평을 본질적으로 확장시키게 되는 첫 계기

4) Josef Dolch, *Lehrplan des Abendlandes: Zweieinhalb Jahrtausende seiner Geschichte*, Darmstadt 1982.

는 이탈리아의 파두아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파두아는 르네상스가 꽃피기 직전에 있었고, 유럽의 정신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중심지였다. 쿠자누스는 먼저 파두아에서 교회법을 전공하고 ‘교회법 박사 학위’(Doctor decretorum)를 취득했다. 쿠자누스는 이미 일찍이 수학과 천문학에 관심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도 배움으로써 자신의 법학 공부를 위한 풍부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여러 학문에 대한 지식은 교회와 공동체에서 다음 시대의 인문주의적인 지성인에게는, 특히 마르틴 루터에 의한 신약성경의 독일어 번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⁵⁾ 어쨌든 쿠자누스는 유럽의 동쪽에 있는 지식인들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데 있어서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했고 뛰어난 대화 능력을 필요로 했다.

1425년 쿠자누스는 젊은 교회 법학도로서 쾰른 대학에 입학했다. 이곳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도미니코회 출신의 대가들, 특히 그중에 가장 뛰어난 학자인 알베르투스 마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대학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같은 점은 쿠자누스가 자신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심화하는데 의미 부여의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쿠자누스에게는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사유와 그의 부정 신학(theologia negativa)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 부정 신학은 진리를 찾으려는 온갖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의 본질에 대해 충분하게 알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단념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신학이다. 이 신학은 신에 대한 언술 중의 그 어떤 것도 신 자신에게는, 살아계신 하느님에게는 적합할 수 없다는 통찰에서 출발한다. 결국 신은 초월적인 채로 머물러 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신의 상을 그리고 만들지만, 이런 상을 통해서도 신성의 깊이까지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만다. 이러한 역설을 통해 암시되는 것은, 신을 체험한 자는 최종적으로는 신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방 세계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쿠자누스는 자신의 쾰른 대학 스승인 헤이메리쿠스 데 캄포(Heymericus de Campo, 1395~1460년)

5) 루터의 독일어 신약성경 번역은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에 의한 그리스어 편집본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와 함께 파리로 떠났다. 여기서 헤이메리쿠스는 카탈루니아어⁶⁾로 씌여진 라이문두스 룰루스(Raimundus Lullus, 1232/35~1316)를 좀 더 면밀히 탐구할 생각이었다. ‘조명[照明] 박사’(Doctor illuminatus)라는 칭호를 받은 룰루스도 총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고향[스페인의 팔마]에서 전수 되어온 투르바두르[남프랑스의 음유시인] 형식의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자랐다. 룰루스는 세계의 종교들, 특히 이슬람과 그 수피 신비주의와의 만남을 이룬 서양 최초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룰루스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쓴 『친구와 연인의 책』(Libre de Amic e Amat)⁷⁾을 통해 유명해졌다. 쿠자누스가 무슬림들과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 접촉했다는 점에서, 쿠자누스는 이 위대한 카탈루니아 사람인 룰루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쿠자누스는 새로 설립된 독일 뢰벤 대학에서 제한한 교수직을 두 번이나 거절하고, 대신에 변호사로, 약 1425년부터는 독일 트리어 교구 대주교의 비서로 활동하고 봉사했다. 온갖 논쟁들로 불안했고, 늘 쇠신을 필요로 한 교회는 쿠자누스를 곧바로 바젤 공의회에 초청했다. 이로써 쿠자누스는 이 공의회에 협력자로 참석했다. 공의회 교부파(공의회주의자)와 교황 지지파 중 누가 공의회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쟁에서, 쿠자누스는 처음에는 망설임이다가 교황과 교황청의 편에 섰다. 그것은 교회의 일치가 그의 근본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필시 그는 교회의 일치가 로마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닌 교황을 통해 보증된다고 보았다. 부분적으로는 바젤에서,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페라라와 플로렌츠에서 공의회가 거행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공의회는 무엇보다 타협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쿠자누스는 1437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갈라진 동방 교회와의 회담에 참석했다.⁸⁾ 교회의 대이고

6) 역주: 당시 쓰이던 대중 라틴어(vulgar latin)의 한 종류.

7) Ramon Llull: Das Buch vom Freund und vom Geliebten. Übersetzt von Erika Lorenz. Freiburg 1992.

8) 1054년 이래로 로마-가톨릭 교회는 동방의 그리스-비잔틴 교회와 갈라졌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로마 교황의 주도권을 통해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대변했다.

(離敎, schisma)를 막기 위해 쿠자누스는 기대에 부합하여 로마의 관 심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에 이러한 노력은 형식 적인 합의의 형태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쿠자누스에게는 다른 사안 보다 2개월 동안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체류를 이미 바젤에서 행한 코란 연구를 계속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쿠자누스는 자신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여러 편의 후기 저작에서, 특히 『코란 연구』(*Cribratio Alchoran*, 1461)에서 표현했다.

이후 쿠자누스는 교회의 교계제도에서 성직자로 불림 받음으로써 자신의 이력을 새롭게 쓰게 된다. 쿠자누스는 비교적 늦게, 1436년에서 1440년 사이에 사제서품을 받게 된다. 반면에 1448년 교황 니콜라우스 5세로부터 추기경으로 서임될 때까지는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450년에 쿠자누스는 브릭센 교구의 교구장 주교로 임명된다. 모젤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배를 가진 선주의 아들인 한 남자가 교회의 장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이자 로마 교회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한 외교관이 되었다. 인문주의자들과 1458년 비오 2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된 시인인 에네아 실비오 피콜로미니와의 오랫동안의 우정은 로마의 서구 그리스도교 최고 위치에서 논의하고 활동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관할 지역인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브릭센 교구로 돌아오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멀리 떨어지기도 했던 “성스러운 도시”인 로마에서 교황의 외교 사절과 로마 교구의 총대리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 성스러운 도시에서 그의 임무 중에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평화의 중재자라는 어려운 과업도 속했다. 이 과업은 정치적인 권력의 침해로부터 교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소위 “오스만투르크에 대항한 십자군” 준비로 베네치아로 가는 중에 쿠자누스는 병을 얻어서 1464년 8월 11일 63세의 나이로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산속 작은 도시인 토디에서 지상의 생을 마감했다. 쿠자누스의 무덤은 빈콜리에 있는 자신의 로마 명의교회인 성 베드로 사슬성당에 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쿠자누스의 명시

적인 유언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쿠스의 성 니콜라우스 병원(이 병원은 자신의 일가에게 기증되었다)에 있는 경당에 안치되었다. 이 병원에는 쿠자누스가 만든 거대한 도서관도 있다. 그는 학자로서 이 도서관을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에 모은 희귀한 필사본의 보고로 만들었다. 쿠자누스는 자신의 재산과 성직록, 특전을 병원의 양로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만들어 희사했다.

III. 쿠자누스 사상을 이루는 요소들

대개는 자신의 임무에 한정되었지만 쿠자누스는 독일을 거쳐 이탈리아에서 아테네로 가서 콘스탄티노플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여행을 다닌 결과로 잠시도 여유 있게 쉬지 못하는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쿠자누스의 학문적인 창작 범위는 상당히 넓다. 신, 세계, 인간이라는 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무대는 균형과 화해를 목표로 하는 쿠자누스의 사유를 규정한다. 자신의 철학적, 신학적 작품들은 대립적인 것들을 대개로 해서 보편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전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쿠자누스는 이미 시대를 거치면서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유럽의 종교사와 정신사에서조차 탁월한 지위를 얻었다.⁹⁾

쿠자누스의 작품들에서 단일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에 근거되어 있는 ‘통일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재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화해할 수 없이 대립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려고 집착하는 그런 사유가 극복되어야 했다. 종교철학적 영역에서는 사유가능한 모든 것이 서로 대립적이지만, 이들의 합치 또는 일치(*coincidentia oppositorum*)를 개념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쿠자누스의 교회 내부

9) 이 책의 V.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에 대한 의견과 증언들을 참조하라.

에서의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외교적인 활동에서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상응한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교황권과 주교들의 관계에서 대규모의 교회 쇄신(Ecclesia semper reformanda)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수도회 공동체의 쇄신 요구라는 관점에서도 수많은 수도회에서 이미 의문시되어버린 삶과도 관련되며,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와의 유감스러운 관계와도 관련된다. 반면 사람들은 쿠자누스가 때로 자신의 과도한 열정에서 판단한 엄격함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적어도 예외적이기는 해도 상대에 대한 적대적 감정 때문에 폭력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고 속덕거리기도 했다. 쿠자누스의 생애 이력의 관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다른 종교들, 특히 이슬람에 대한 이해, 그와의 대화, 만남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다. 쿠자누스는 많은 설교를 하고 작품을 썼으며, 솔직한 대화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대립되는 것들을 조화시키려는 기질을 자신의 삶의 과제로 삼은 것은 원칙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쿠자누스 자신으로부터 영감을 주는 계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에게 어떤 중요한 통찰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 하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 사건은 1438년 아테네에서 베네치아로 가던 배가 풍랑을 겪을 때 일어났다. 당시 쿠자누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하여 페라라에서 열리는 일치 공의회에 참석하는 동방 교회의 주교들과 그리스 황제와 동행해야 했다. 이때 하늘의 선물은 그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통찰로 나타났다. 이 통찰은 파악될 수 없는 것은 자연에 따라서 파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부분적인 앎”(1코린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절대적 진리는 지식을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쿠자누스가 확신하듯이 오히려 진리는 무지에 내맡겨져 있다. 그래서 진리는 “아는 무지”(docta ignorantia)의 특성을 수용한다. 비록 이렇게 인지되는 것이 쿠자누스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인식으로 묘사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지되는

것은 동시에 오랫동안 맴돌던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쿠자누스는 1440년 자신의 고향인 쿠스에서 위의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아는 무지』(*De docta ignorantia*)를 탈고했고, 이와 주제적으로 이어지는 작품인 『추정론』(*De coniecturis*)에서 추정의 본질에 대해 사유했다. 쿠자누스는 자신의 이 양대 주저와 다른 작품에서 자신의 사유의 결과를 정리해서 표현했고, 이 결과로부터 귀결되는 결론들을 해명했다. 고대 사상가들의 인식 노력과 비교해서, 쿠자누스는 자신의 행위를 인간의 본질 안에서 행해지는 “지혜의 사냥”으로 표현한다. 쿠자누스는 이 점을 동일한 용어의 제목을 가진 자신의 후기 작품 『지혜의 사냥』(*De venatione sapientiae*)에서 피력했다. 쿠자누스가 요구하는 진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로서 이 진리를 전제하는 것이 그에게는 필수적으로 여겨졌다. 이 점은 특히 그의 종교 철학적인 숙고와 코란에 대한 평가에서 표현된다. 쿠자누스는 이 같은 교회적이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전제된 이해를 숨기지 않았다.

쿠자누스는 철학자로서도 서양 사상의 위대한 전통 속에 있다. 플라톤, 신비주의자 헤르메스 트리스메지스토스¹⁰⁾,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로 인도한 신플라톤주의-그리스도교 철학, 그 정점에 있는 (위)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500여점의 작품들, 그리고 디오니시우스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중세의 신비주의, 특히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그를 따르는 학파는 모두 쿠자누스 사상의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쿠자누스는 신을 추구하려고 나아가는 사유를 위한 요소들을 표현했다. 쿠자누스는 이러한 점을 일련의 저작들, 이른바 신의 표상에 대해 쓴 세 작품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쿠자누스는 신을 찾는데 전념했으며[『신을 찾음』(*De quaerendo Deum*)], 신의 자녀가 되는 본질을 숙고했고[『하느님의 자녀됨』(*De filiatione Dei*)], 신의 숨겨진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있다[『감추어진 신』(*De Deo abscondito*)]. 이러한 긴장감

10) *Die Hermetischen Schriften. Corpus Hermeticum*. Deutsche Ausgabe mit Einleitungen und Kommentaren von Maria Magdalena Miller. Hildesheim 2009.

넘치는 사유에는 신의 바라봄에 대한 숙고[『신의 바라봄』(*De visione Dei*)]도 속하며, 신의 바라봄의 정점[『사유의 정점』(*De apice theoriae*)]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더욱이 쿠자누스는 위대한 디오니시오스의 후계자를 자처했기에, 인간의 의식 속에서는 절대자의 그 심오한 깊이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나 됨은 창조된 세계에서 다수의 타자적 존재들로 ‘펼쳐진다.’ 따라서 구분하는 이성[ratio]은 이렇게 펼쳐진 하나 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성[intellectus]으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탐구’(incomprehensibiliter inquirere)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무한자를 ‘건드리는’ 신비적 방식으로 [일반적 의미의] 파악방식을 넘어선다.”¹¹⁾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가 끼친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자주 상이한 방향으로 발산되었다. 쿠자누스가 죽고 난 후에도 그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488년에서 1565년 사이에만 다섯 질의 전집이 발간되었으며, 여러 번 간행된 개별 텍스트 형태도 유포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상이한 물음들에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에 대한 물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에서 이성적인 논증들이 유효한 범위에 대한 물음이거나 근원적인 지혜(prisca sapientia)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그러하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은 우주론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우주의 무한성과 세계의 다수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이 정사각형이 되는 것과 같은 수학적 문제가 그러하다. 하지만 이 모든 물음과 문제는 ‘아는 무지’(docta ignorantia)와 ‘대립되는 것들이 하나로 합치됨’(coincidentia oppositorum)이라는 근본 사유와 관계된다. 이 모든 주제들이 속한 각 영역마다 쿠자누스의 사유가 녹아 들어가 있다.”¹²⁾

쿠자누스의 생애에서 그의 사유는, 예컨대 수도자들과 서로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알려졌다. 독일 테거른 호수에 위치한 베네딕도

11) Volkmar Zühlsdorff, in: *Wörterbuch der Mystik*, Hrsg. Peter Dinzelsbacher. Stuttgart 1989, S.382.

12) Tilmann Borsche, in: *Klassiker der Religionsphilosophie*, S.257.

수도회의 수도원장, 분원장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들과의 서신 교환에는 본질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는 서신에서의 논증 방식을 표상의 형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¹³⁾ 쿠자누스는 이러한 점을 자신의 중심적이며 유명한 테제인 ‘대립되는 것들이 하나로 합치됨’(coincidentia oppositorum)으로 해명한다. 창조는 신이 자신을 외적으로 펼치고 계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창조를 신의 흘러넘침이라는 쿠자누스의 특별한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립되는 것들은 신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세상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신이 자신을 외적으로 펼치는 것’(explicatio Dei)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신 자신은 다수의 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로 있으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립적인 것으로 있다. 이러한 사유는 바로 독일 관념론, 특히 헤겔로 이끌 뿐만 아니라, 화이트헤드와 떼이아르 드 샤르탱으로도 이끈다.”¹⁴⁾ 표면적인 이해를 통해서는 제대로 파악될 수 없는 이 같은 합치는 이성적으로 한정된 인식을 넘어서 나아가며, 오로지 지성의 바라보는 인식(visio intellectualis)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으며, 이성(ratio)을 통해서는 접근될 수 없다. 그러나 신 안에서는 대립적인 것들이 합치되기 때문에, 신은 단적으로 하나, 일자이다.¹⁵⁾ 이러한 사유는 카루투지오회 수사였던 디오니시우스에게서도 발견된다.¹⁶⁾

쿠자누스의 사유가 지닌 의미를 알아보고 알린 첫 번째 인물로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년)를 들 수 있겠다. 브루노는 플라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비견될 만큼, 심지어 “신적인 쿠자누스”라고 말한다. 브루노는 신과 자연의 무한성에 대한 개념을 펼쳐나가면서, 이를 쿠자누스의 사유와 연결시킨다. 이로써 근

13) Belege in: *Deutsche Mystikerbriefe des Mittelalters, 1100~1550*. Hrsg. Wilhelm Oehl. (1931) Darmstadt 1972, S.531~569.

14) Hans Küng u.a.: *Christentum und Weltreligionen*, München 1984, S.303.

15) Karl Albert,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sche Mystik*, Darmstadt 1996, S.116f.

16) 역주: Der Kartäuser Dionysius(1402/03~1471), 북부 독일과 네덜란드에 교황특사로 파견된 쿠자누스를 수행했다.

대의 의식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지금까지 유효한 것으로 여겼던 스콜라적인 관념의 형태들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us Ficinus, 1433~1499년)와 이른 시기에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킨 피코 델라 미란돌라(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1463~1494년)에서도 쿠자누스의 영향을 받은 중요한 의미들이 결코 적지 않게 나타난다. 개신교 측에서도 마르틴 루터로 이어지는 개혁적 근본적 사유가 쿠자누스에게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향은 더 나아가서 레싱¹⁷⁾에게까지 미쳤다.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피히테, 셸링, 헤겔의 관점에도 이러한 영향이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헤겔은 쿠자누스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⁸⁾ 그 외의 다른 사상가에게 있어서는 쿠자누스의 사유 형태가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¹⁹⁾ 16~17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쿠자누스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영향이 나타났다.

쿠자누스의 사상에 대한 복합적이며 동시에 불분명한 영향사를 항상 일관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틸만 보르쎈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진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음 세기에 쿠자누스의 작품에서 철학, 신학, 그리고 학문에 대해 언급할만한 가치가 부인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쿠자누스의 작품은 19세기에 쿠자누스의 작품이 ‘재발견’된 이래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근대적 사유를 위해 중요한 요소들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싹이며 선구자로서 유효하다. 이 서로 다른 두 평가는 합치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가치를 중시한다는 면에서는 특징적이지만, 그렇다고 이 두 평가가 이러한 합치론을 받아들여 연구한 결과로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²⁰⁾ 여기서 쿠자누스가 자신의 작품 전체를 종합적인 형태

17) 역주: Lessing, Gotthold Ephraim(1729~1781), 독일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사람이며, 이성에 기초를 둔 인류의 진보를 확신하고, 신앙의 자유, 인격의 독립을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레싱은 독일 계몽사상가 중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보주의자였다.

18) 역주: 헤겔은 쿠자누스를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 K. Bormann, in: *Grosses Werklexikon der Philosophie*. Hrsg. Franco Volpi. Stuttgart 1999, S.1091f.

로 나타냄으로써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소위 쿠자누스 학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럼에도 쿠자누스는 획기적으로 사유한 인물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때로 요셉 베른하르트가 강조하듯이, 쿠자누스가 일생동안 이룬 업적은 새롭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눈부시게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쿠자누스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쿠자누스의 전 작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베른하르트의 생각을 아래에 인용한다.

“생애 마지막 해(1464년)에 이르기까지도 계속된 자신의 작품 속에서 추구한 꾸밈없이 솔직하게 물두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한 사상가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 사상가는 종교적 깊이에서 신의 암호를 풀기 위해 분투했으며, 무한히 열려 있는 가슴으로 느끼는 깊은 신심에서 나온 갈망으로 미지의 존재를 건드리려 애썼다. 이와 더불어 쿠자누스는 교회의 가르침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감을 지니고, 이러한 가르침이 자신과 당대 사람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노력에서 철학적인 필연성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비주의를 통해서도 지속된 경계선은 신비주의의 철학적 측면을 신학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논의하는 방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²¹⁾

20) Tilmann Borsche, in: *Klassiker der Religionsphilosophie von Platon bis Kierkegaard*. München 1995, S.257.

21) Joseph Bernhart, *Die philosophische Mystik des Mittelalters* (1922), Darmstadt 1974, S.229.